

연예종합

요즘 잘 나가는 들...

이 거지같은 말...밥만 잘 먹더라...꺼져줄게 잘 살아

서영은 '이 거지같은 말' 음원사이트 1위 싸늘이 신인 지나 '꺼져줄게...' 데뷔 한달만에 Mnet 톱은유적 제목 대신 직설적 제목 '강해야 뜬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프고 싶다면 강하게!"
이제 더 이상 노래의 제목은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것이 대세가 아니다. 전에는 노래 제목으로 상상할 수 없던 직설적

인 표현의 제목을 앞세운 노래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꺼져줄게 잘 살아' '밥만 잘 먹더라'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 거지같은 말' 등의 노래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노래 제목으로 금기시하던 자극적인 표현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신인 지나가 부른 '꺼져줄게 잘 살아'는 12일 케이블TV Mnet의 '엠 카운트다운'에서 데뷔 한 달 만에 1위에 올랐다.

5일 공개된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봐'도 공개와 동시에 네이트 컬러링, 벅스뮤직, 소리바다, 다음뮤직, 몽키3 등 다섯 곳의 음원사이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이들에 앞서 붙어는 서영은이 정영과 함께 부른 '이 거지같은 말'이 주유음

원사이트에서 1위를 싸늘이하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2AM의 창민과 에이트의 이현이 구성한 프로젝트 듀엣 '음모'의 '밥만 잘 먹더라' 역시 7월28일 공개된 후 음원사이트 멜론과 싸이월드 BGM차트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요즘 새로 등장하는 노래들 역시 제목이 강하고 자극적이다. 여성그룹 제이큐티의 '알거 없잖아', 유리상자 박승화와 여가수 알리의 듀엣곡 '너를 토하고 토해내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노래가 히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이름이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멜로디가 중심이었다. 2008년부터 손담비

의 '미쳤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어쩌다' 등 중독성 있는 가사를 앞세운 '후크송'이 음악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제는 가수의 지명도와 따라하기 쉬운 가사 외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강한 제목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제이큐티의 소속사 G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음악을 구매하는 디지털 음원시대를 대역서 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답:노래제목



평균신장 172cm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나인뮤지스 멤버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체격 조건 덕분에 구기,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스타제국 엔터테인먼트

'모델돌' 나인뮤지스...알고보니 '체육돌'

무용부터 농구·럭비·투포환까지...
"우리가 모이면 태릉 선수촌이에요"

'모델돌, 알고 보니 체육돌?'

평균신장 172cm로 데뷔 전부터 '모델돌'이란 애칭을 얻은 여성 그룹 나인뮤지스. 9명 멤버 대부분이 슈퍼모델과 CF모델 출신이어서 '모델돌'이란 별칭을 얻었지만 알고보면 어릴 적부터 포에 비해 신체조건이 워낙 뛰어나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리더이자 맏언니인 라나는 중학생 시절 핸드볼과 농구선수로 활약했다. 신장

174cm로 2008년 제17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1위 출신인 라나는 초등학교 때 이미 170cm를 넘은 큰 키로 운동선수로 발탁됐다.

170cm의 세라는 고교 시절 럭비 선수로 활약했다.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유학한 세라는 동양인 여자들은 여리고 약하다는 현지인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고교시절 럭비팀에 입단해 2년간 선수로 활약했다. 럭비를 하려고 일부러 10kg나 몸무게를 늘린 약바리다.

신장 174cm로 2007년 제 16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1위인 이섬은 초등학교 1학

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간 육상 선수로 뛰었다. 단거리와 중거리, 높이뛰기 등 여러 종목을 뛰었고, 시도대학전에 왕선시 대표로 출전해 상을 받기도 했다.

전국대 영화학과 재학해 '건대 장진영'으로 불리는 은지는 초등학교 시절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하다 중학교 진학하면서 고전무용과 재즈발레를 전공하기 시작했다. 수영선수 출신 어머니로부터 유아시절 수영을 배워 선수 못지않은 수영실력을 자랑한다.

고소영을 닮은 외모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재경은 초등학교 시절 투포환 선수와

고적대의 일원으로 활약했고, 2008년 슈퍼모델 출신인 민하는 초등학교 시절 수영선수로 활약했다. 이유애린도 중,고교 시절 한국무용을 전공했다.

소속사 스타제국 엔터테인먼트 측은 "구기,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이어서 선수생활을 했고, 실제 선수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골프, 태권도,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에 실력이 뛰어난 멤버들이 많다"면서 "멤버들이 운동 감각이 뛰어나다보니 소속사 식구들끼리는 나인뮤지스를 '태릉선수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한재영 美 진출...이병헌이 도왔다

이병헌(사진)이 같은 소속사에 있는 후배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나섰다.

그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G.I.조'를 통해 할리우드까지 진출하는 등 활동 무대를 세계 전역으로 넓힌 '월드 스타'다. 2011년 초 미국으로 가서 'G.I.조' 2편을 촬영한다. 1편과 같은 스타플레이도 기대된다.

이병헌의 '후배 챙기기'의 첫 성과는 최근 확정된 한재영과 미국 유명 에이전트 시인 CAA와의 전속계약 체결. CAA는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대거 포진한 유명 에이전트.

이병헌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개봉에 맞춰 최근 스포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은 먼저 세계 시장에 진출했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전해 주는 것"이라며 한재영의 에이전트 계약을 물밑에서 도왔다고 공개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BH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후배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병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밀한 비즈니스 계획이 아니다. "난 비즈니스맨도, 세일즈맨도 아니다"고 말하는 그가 선택한 것은 발품 전략이다.

이병헌은 "미국의 에이전트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반드시 우리 회사 연구자들의 프로필과 사진이 새겨진 달력들을 여

美 에이전트 만날때 프로필 챙겨가
"진출 의지 있다면 누구든 돕고 싶다"

러 개 챙겨 들고 간다"며 "이야기를 할 때 옆에 프로필을 놔두면 관심을 보이는 에이전트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자신만의 방법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이 통한 것이 바로 한재영이다. 현재 BH엔터테인먼트에는 드라마 '동이'의 여주인공 한효주를 비롯해 김민희, 주니, 진구 등의 배우들이 있다.

이병헌은 "외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고, 본인 의지가 확실하다면 누구든 돕고 싶다"며 고 말해 앞으로 소속 배우들의 해외 무대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영결식이 끝나고 장지로 향하는 앙드레 김의 운구행렬. 국경선 기자 onecut@donga.com

故 앙드레 김, 이제 천상의 패션쇼를...

서울대병원서 장례식 엄수...유족·지인등 200여명 눈물

12일 세상을 떠난 고(故) 앙드레 김의 장례식이 15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고인의 장례식은 아들 김중도 씨 등 유족, 지인, 문화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식으로 진행됐다.

장례식에 이어 유해는 오전 6시에 13일 추서된 금관문화훈장, 영정에 이어 장례식장 밖 운구차량으로 이동했다. 생전 흰색을 즐겨 입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운구 차량도 흰색으로 준비됐다.

운구 행렬은 앙드레 김이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 압구정동 자택, 신사동의 앙드레 김 아뜰리에, 지난해 완공한 경기도 기흥의 앙드레 김 아뜰리에까지 평생 고인의 흔적이 담긴 곳들을 찾은 뒤 오후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고인의 측근인 도신우 모델센터인터내셔널 대표는 "평소 선생님의 말씀대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조용하게 치러졌다"고 말했다. 이날 발인에는 배우 권상우, 장지에는 김희선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앙드레 김은 2005년 5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7월 중순 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악화된 병세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12일 세상을 떠났다. 앙드레 김은 1962년 서울에서 첫 패션쇼를 열고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디자이너로 데뷔한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수백 차례가 넘는 패션쇼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인 한국 패션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 박성범 감독 별세



'내 여자의 남자친구'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것들' 등을 연출한 박성범(사진) 감독이 15일 오전 0시 15분 척수암으로 투병중이던 경기도 시흥 대야동 신천연합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41세. 고인은 지난해 6월 척수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

1969년 10월 대전에서 태어난 박성수 감독은 영화 '행복한 장의사',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조감독을 거쳐, 2007년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로 감독 데뷔했다. 이후 단편 '리워드', 2009년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것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빈소는 경기도 시흥 신천연합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

박명수 기획사 "줄 서시오"

문의 쇄도... "오디션 검토 중"

'박명수 사장님의 소속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개그맨 박명수가 9월 연예기획사 거성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다는 보도(7일자 스포츠동아) 이후 많은 연예인 지방생들이 '박명수 대표'의 휘하를 찾고 있다. 박명수 측은 15일 "어떻게 하면 거성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전화와 메일이 하루에도 수 백 통씩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성엔터테인먼트는 개그맨 김경진과 유상범, 박명수가 음반을 제작한 신인가수 김단야 등이 가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거성 엔터테인먼트는 신인 개그맨과 가수를 찾기 위해 오디션도 고려 중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